



올 시즌 좋은 징후이길 바라며...

5일 오후 일본 기타큐슈 시민구장에서 열린 요코하마 베이스타즈 대 요미우리 자이언츠의 시범경기 4회초 주자 1루 상황에서 이승엽이 휘두른 방망이가 부러지고 있다.

/연합뉴스

베이징 올림픽 야구대표 두산 김경문 감독이 지휘

2008년 베이징올림픽 야구종목 아시아지역예선에 출전하는 국가대표팀을 지휘할 사령탑으로 김경문(49·사진 위쪽) 두산 베이스 감독이 선임됐다.

한국야구위원회(KBO)는 5일 기술위원회(위원장 윤동균)를 열고 여러 후보를 놓고 토론을 벌인 끝에 만장일치로 김경문 두산 감독을 선임했다고 발표했다.

KBO 기술위는 또 김 감독을 보좌할 수석 코치 및 투수코치로는 선동열(44·사진 아래쪽) 삼성 감독을 선임했으며 나머지 코치 2명은 김경문 감독의 의견을 물어 결정할 예정이다.

베이징올림픽 아시아지역예선은 오는 11월 30일부터 12월 2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수석코치 선동열 삼성감독

열리며 선수 엔트리는 24명이다.

기술위는 국내외에서 활약중인 모든 선수들을 대상으로 기량을 점검한 뒤 4월초 투수 20명, 포수 5명, 내·외야수 각 10명으로 구성된 예비 엔트리 45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1월15일 첫 모임을 가진 기술위는 그동안 4차례 감독 선임 회의를 갖고 난상토론을 거듭했다.

당초 국가대표 감독 후보로는 한국시리즈 2연패를 이룩한 선동열 삼성 감독이 유력하게 접쳐졌으나 본인의 고사속에 경륜에서 앞선 김경문 감독이 낙점된 것으로 전해졌



야구가 위기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야구인들의 힘을 모아 최선의 결과를 만들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승엽 '打 침묵'

일본프로야구 시범경기서 2경기 연속 무안타

일본프로야구 이승엽(31·요미우리 자이언츠)과 이병규(33·주니치 드래곤스)가 5일 시범 경기에서도 전날에 이어 나란히 안타를 터뜨리지 못했다.

이승엽은 기타큐슈 시민구장에서 벌어진 요코하마 베이스타즈와 경기에서 1루수 겸 4번 타자로 출장, 1타수 무안타로 경기를 마쳤다. 2회 첫 타석에서 1루 땅볼로 물러났고 4회에는 볼넷은 얻은 뒤 대주자 이와다테 마나부로 교체됐다.

첫 출장이던 지난 2일 소프트뱅크전에서 홈런성 2루타 포함 3타수 2안타로 시범 경기를 활약한 이승엽은 4일 소프트뱅크전에서는 삼진 2개 등 3타수 무안타로 끝났다.

아직 투수들의 불이 눈에 익지 않아 이승엽이 정상 캐도에 올라오려면 5-10경기 이상을 더 치러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라 다쓰노리 감독은 이날 주전 3루수 겸 3번 타자인 오가사와라 미치히로를 선발 라인업에서 빼고 외야수 다카하시 요시노부를 3번에, 5번으로 기용했던 루이스 곤살레스를 2번에 박는 새로운 타순표를 짰다. 푼타자로는 이적과 다니 요시토모가 처음으로 나섰다.

이병규는 나고야돔에서 열린 지바 롯데 마린스전에서 이틀 연속 중견수 겸 1번 타자로 출장했으나 2타수 무안타에 그쳐 연속 경기 출루가 3경기에서 막을 내렸다.

이병규는 상대 좌완 선발 나루세 요시히사에게 1회 유격수 뜬공, 3회 1사 1루에서는 1루 병살타로 맞았고 6회 수비부터 구라모토 히데노리로 교체됐다. 시범 경기 타율도 0.200(10타수 2안타)으로 떨어졌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삼성 vs 현대 정규리그 정상다툼

'햄 피언 걸' 정진 직행 티켓의 주인을 가리자'

올 시즌 남자 프로배구에서 선두 경쟁전을 벌이는 삼성화재 블루팡스와 현대캐피탈 스카이워커스가 오는 11일 낮 2시 천안 유관순체육관에서 정규리그 1위 자리를 놓고 최종 대결을 벌인다.

'제2의 르네상스'를 맞은 프로배구가 마지막 6라운드를 진행중인 가운데 남녀 3강 플레이오프(PO)

11일 천안 유관순체육관서

진출 팀이 가려졌고, 여자부는 흥국생명이 2년 연속 정규리그 우승 행가대를 치며 챔피언에 선착했다.

이제 챔피언 직행 티켓의 주인을 결정할 남자부 정규리그 1위 싸움만 남았다.

삼성화재는 22승4패로 2위 현대캐피탈(22승5패)에 승수 차이 없는 불안한 선두를 지키고 있다.

오는 11일 정면 대결 결과에 따라 삼성이 선두를 굳히며 챔피언에 가느냐와 반대로 현대가 막판 뒤집기로 정규리그 3연패를 이룰지가 판가름난다.

챔피언 직행 팀은 돌풍의 대항공과 치열한 플레이오프(3전2선승제)를 치르지 않고 열을 가까이 풀맛 같은 휴식으로 약점을 보완하며 재충전할 수 있어 우승에 절대적으로 유리하다.

삼성과 현대 모두 마지막 '운명의 혈투'에 총력을 펼 수 밖에 없는 이유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박찬호 8일 등판

보스턴 레드삭스와 시범경기

'코리아특급' 박찬호(34·뉴욕 메츠)가 8일(한국시간) 보스턴 레드삭스를 상대로 시범 경기에 첫 등판한다.

뉴욕 메츠 구단은 5일 보도자료인 '개임노트'를 통해 박찬호가 8일 새벽 3시 플로리다주 포트 마이어스 팜스 시티 파크에서 열리

는 보스턴과 시범경기에 출격한다고 발표했다.

메츠 구단은 이날 박찬호에 이어 애런 실리, 페드로 펠리시아노 등을 차례로 내보낼 예정인데 박찬호와 실리는 5선발 자리를 놓고 '베테랑 경쟁'을 벌이고 있어 랜돌프 감독은 이날 두 선수의 기량을 냉철하게 비교하는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보스턴은 '너름볼러' 팀 웨이크필드가 나서 박찬호와 대결을 펼친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이재진-황지만조 우승

독일배드민턴선수권 남자복식

이재진(밀양시청)-황지만(강남구청) 조가 2007 독일배드민턴선수권대회에서 정상에 올랐다.

이재진-황지만 조는 5일(한국시간) 독일 물헤임엔더부에서 벌어진 대회 최종일 남자복식 결승에서 대표팀 동료 정재성-이용대

(이상 삼성전기)조를 꺾은 끝에 2-0(21-18, 22-20)으로 꺾어 금메달을 차지했다.

이-황 조는 지난 1월 코리아오픈 결승에서 장-이 조에 0-2로 패했지만 2개월만에 독일오픈 결승에서 실속, 국내 1인자를 놓고 치열한 라이벌전을 예고했다.

독일오픈을 마무리한 배드민턴 대표팀은 영국 버밍엄으로 이동해 7일부터 전영오픈 슈퍼시리즈에 출전할 예정이다.

광주 광산구청 여자태권도 창단 9년만에 첫 '태극소녀' 탄생

한진선 해비급 국가대표 뽑혀

광주 광산구청 여자 태권도 선수단이 창단 9년만에 국가대표를 배출하는 쾌거를 이룩했다.

광산구청 소속 한진선(사진 가운데 흰색도복)은 지난달 28일 국가원에서 열린 국가대표 태권도 선발전에서 여자부 해비급 1위에 올라 '2007 한국국가대표'로 최종선발됐다.

이로써 한진선은 오는 5월 북경에서 열리는 제18회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에 국가 대표로 출전하게 됐다.

지난 98년 2월 태권도 여자 선수단을 창단한 광산구청은 그동안 각종 전국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광주 태권도를 대표하는 팀으로 자리매김했다.

특히 민선 4기(구청장 전갑길) 출범 이후 해비급 한진선과 밴던급 장가영, 율터급 양정임 등 3체급에서 우수 선수를 영입, 기존 5체급에서 전체급(8체급)의 선수를 확보하며 광주지역 최대 실업팀의



면모를 갖추었다.

광산구청은 대회입상 성적에 따라 특별상금 지급과 태권마일리지제도(성적의 높이에 따라 성과금 차등 지급), 특별 승급제 등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 선수단의 성취동기를 높이는 한편 선수단 전용훈련장 및 숙소를 마련하는 등 태권도 육성

정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최기술 광산구청 태권도 감독은 "구청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선수들의 사기가 높아졌다"면서 "오는 10월 광주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대표로 출전, 최소 금메달 3개 이상을 획득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